베트남-중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이한우*

Ⅰ. 머리말
Ⅱ. 베트남-중국관계의 역사적 전개
Ⅲ.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중국관계의 제 양상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베트남과 중국은 '입술과 치아 관계'(脣齒關係)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양국은 역사상 기원전부터 갈등과 협력 속에서 지배-종속과 대결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베트남은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1,000년간이나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고, 독립을 찾은 이후에도 중국과의 조공관계 속에서 협력과 갈등을 계속해 왔다. 베트남이 중국의 종주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배하면서부터다. 그러나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주적 외교정책을 펴게 된 것은 1975년 통일 이후라고 해야겠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의 양국의 협력과 갈등은 현대에도 여전히 나타났다. 현대에 들어와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전쟁 수행을 위한 원조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베트남이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여전히 동남아시아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양국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안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베트남-중국 양국간 협력과 갈등관계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베트남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양국관계의 이중성을 분석하며, 최근 정치, 경제부문에서의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과 갈등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온 양국관계에 대한 이해는 동남아시아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II. 베트남-중국관계의 역사적 전개

1. 근대 이전 양국 관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부터 약 1,000년간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국에는 한(漢) 무제(武帝)가 영토확장을 꾀하던 시기였는데, 한은 광둥(廣東)과 베트남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국가 중 하나인 남월(南越)을 점령하고 현재의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아홉 개의 군(郡)을 설치하고 이를 총괄하는 쟈오찌 자사부(交趾刺史部)를 두어 직접 지배하였다. 중국의 지배는 서기 938년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에도 베트남에서는 수많은 저항운동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40년 쭝(Trung)씨 자매가 일으킨 대 중국 저항운동이 있었지만 후한(後漢)의 마원(馬

援) 장군에 의해 곧 진압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저항운동의 발생과 진압이 계속되었다. 이후 중국의 오(吳), 진(晋), 수(隋), 당(唐)의 통치로 이어지고, 베트남 지역은 그간 몇 개의 명칭을 거쳐 679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명명됨으로써 '안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중국에서 당이 멸망하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베트남은 응오 꾸옌(Ngo Quyen)을 지도자로 하여 중국군을 물리치고 939년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베트남은 중국을 종주국(宗主國)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중국 황제의 승인, 즉 책봉(冊封)을 받아 예속국으로서의 지위가 되어 3년, 2년, 또는 4년마다 정례적으로 물자를 중국 황제에게 진상하는 조공(朝貢)관계를 통하여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항쟁을 계속해 왔다.[1]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웬(Nguyen) 왕조도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중국에 국왕으로 책봉해줄 것과 국호를 '남비엣'(Nam Viet: 南越)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이 과거 한(漢) 나라에 저항하였던 남월(南越)과 같은 국호를 인정해주지 않고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비엣남'(Viet Nam: 越南)으로 할 것을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베트남이 대외적으로는 형식적인 예속국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중국과 동등한 국가로서 대등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은 북국(北國), 베트남은 남국(南國)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한 것은 국가안보 유지, 대내적 권위 확립, 경제적 이득, 발전된 문화의 수용 등 다분히 실리적(實利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베트남이 중국의 예속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된 것은 청불(淸佛)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후 체결한 1885년 톈진(天津)조약에서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면서부터다. 청불전

1) 자세한 내용은, 유인선(1987) 및 유인선(2002)를 참조.

쟁은, 1883년 및 1884년에 베트남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으로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자,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종주국임을 주장하여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었다.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배하에 있던 기간에는 양국간 공식적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종주국이라는 사고를 계속 지니고 있었다. 예로써, 중국 청 나라의 법전인 『대청회전』(大淸會典) 1899년판에는 여전히 베트남이 중국의 조공국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유인선 1987, 91).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978년 캄보디아에 침공한 베트남을 '징벌'한다는 목적으로 중국이 1979년초 베트남을 침공한 것은 역사적으로 종주국이라는 의식이 중국인들의 사고 속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2. 사회주의 국가 성립 이후 양국 관계

1) 사회주의 국가 초기 협력관계

공산당이 중국에서 1921년 결성되고, 베트남에서는 1930년 결성되면서부터 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혁명에 착수하였다. 중국공산당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은 베트남 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베트남 혁명가들이 코민테른을 통하여 전략적 지시를 받지만, 경제적, 군사적 및 혁명가 교육면에서 실질적 원조의 많은 부분은 중국이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전략, 전술 및 투쟁경험을 중국으로부터 배웠다. 베트남공산당의 혁명이론 용어는 대부분 중국어를 베트남식으로 읽은 것이었다(三尾忠志 1988, 232).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1941년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들어가면

서, 베트남도 프랑스의 지배에 이어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일본이 1945년 항복 선언을 하면서 독립의 길을 걷게 된다.

베트남에서는 1945년 9월 호찌민(Ho Chi Minh)을 지도자로 하는 베트민(Viet Minh)[2]을 중심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곧 프랑스가 재식민지화를 추구함에 따라 양국은 1946년부터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베트남 독립 초기 중국공산당은 아직 내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구체적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나, 중국에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950년에 양국간 외교관계가 맺어진 후, 약 30년간 중국은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와 2만명의 고문단 및 30만명의 군인을 파견하여 베트남을 지원하였다고 한다(岡部達味 1996, 138).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베트남이 프랑스와의 전쟁 및 그 이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기간에 양국의 혁명가들은 긴밀히 협력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양국의 가장 긴급한 목표가 독립과 안전보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베트남-중국간에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것은 이후 양국관계에 갈등을 만드는 불씨가 되었다. 베트남이 1954년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함으로써 베트남-프랑스간 전쟁은 종결되고, 제네바에서 강화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인도차이나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베트남을 잠정적으로 두 지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소련의 몰로토프(Molotov) 외상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서방측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베트남에 종용하였다. 중국이 베트남에 종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 프랑스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한 것은 중국의 물질적, 인적 대량 원조에 의해 가능하였다고 중국측이 생각한 때

2) 이것은 호찌민을 지도자로 하고 공산당이 주도하여 1941년 결성한 독립운동을 위한 통일전선조직인 베트남독립동맹(Viet Nam Doc Lap Dong Minh)의 첫 자와 끝 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며, '월맹'(越盟) 이라고도 한다.

문이었다. 베트남의 승리는 중국의 천껑(陳賡) 장군이 군사고문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하여 협력하고, 이후 웨이구오칭(韋國淸) 장군이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전 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한 것에 힘입었다는 것이다(岡部達味 1996, 138). 또한 제네바회담에서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3개국은 '통합된 일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국과 소련 모두 이에 반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베트남이 인도차이나에서 팽창주의를 추구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은 당시에 17도선을 기준으로 2년간 분단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승리였다고 평가되었지만, 1970년대말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베트남은 중국이 제네바회담에서 서방측과 타협함으로써 베트남의 완전 통일을 저해하였다고 비난하였다.

2) 1954년 이후 양국 관계

1954년 제네바회담 이후 베트남에는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고, 북베트남-중국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북베트남이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국은 모델이 되었다. 북베트남의 토지개혁은 중국의 사례를 따라 수행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이 북베트남에 파견되어 이 과정을 지도하였다. 산업의 국유화 및 농업집체화를 포함하는 사회주의적 개조작업도 중국의 모델을 따랐다(Vo Nhan Tri 1990, 1-13).

국제정치적으로는 양국관계가 밀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시는 중소간에 이념논쟁을 벌이던 시기였는데, 북베트남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 등장 이후부터 서방권과의 평화공존노선을 채택한 소련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평화공존노선은 세계전쟁을 피하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지배범위를 각개 격파하여 축

소하고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데에 저해가 되는 현대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다. 북베트남이 평화공존노선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로부터의 위협하에 있는 북베트남과 같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흐루시초프를 비난하면서 공산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북베트남은 소련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 협력관계의 여지를 남겨 놓으려 하였다(三尾忠志 1988, 234-6). 더불어, 중국이 헤게모니를 쥐려는 시도는 결국 전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북베트남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북베트남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부조화의 양측면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남부 베트남 및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조가 긴요(緊要)하였으므로 부조화의 측면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3) 베트남 전쟁과 양국관계

미국이 1965년 2월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후 북베트남은 남부를 통일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였다. 북베트남 정부예산에서 외국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전쟁이 격화되기 이전에 20%대를 유지하다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는 60%대를 나타낼 정도로 막대하였다. 당시 북베트남은 연간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약 7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약 3억 달러, 합하여 연간 약 10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고 전해진다(Vo Nhan Tri 1990, 39-40).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북베트남에 1954-78년간 정

미공장, 제당공장, 제지공장, 성냥공장, 전구공장, 화력발전소, 조미료공장, 도자기공장 등을 포함하는 450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1978년 이전에 339개 프로젝트를 완성하였고, 1965-75년간 의류, 석유, 자동차, 열차 등 각종 소비재 7억 위앤(元) 상당량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1950-78년간 2만명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북베트남에 파견하여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지원하였고, 베트남의 통일사업에 6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30년간 북베트남에 지원한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 전체 규모는 2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고 한다(Vo Nhan Tri 1990, 42).

그러나, 당시는 중소간 이념논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복잡한 양상을 띤 시기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경우 미국의 중국 침공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베트남에 대한 전면적 군사 지원을 주저하고 있었다. 또한 북베트남은 소련의 브레즈네프(Leonid I. Brezhnev)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평화공존노선을 유지하려는 그의 대외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1969년 가을 이후부터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갔다. 이것은 1968년 베트남에서 구정공세(Tet Offensive)로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퇴진하기 위하여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길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상의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중국과 데탕트를 모색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중국측으로서는 중소간 갈등상황에서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미국은 1969년 여름부터 남베트남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베트남전쟁 기간 중 1971년 4월 핑퐁외교, 7월 키신저의 중국 방문,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하여 미국-중국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었는데, 이는 북베트남을 격분케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북베트남은 이에 대해 민족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무원칙적 타협의 자세라고 중국을 비난하였다(三尾忠志 1988, 235). 더욱이 1973년 파리협정 이후 중국은 북베트남에게 남베트남에서의 투쟁의 강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였고, 북베트남은 이를 분단을 지속시키려는 속셈으로 파악하였다(Amer 1993, 317).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 양국의 서방측과 타협하는 대외정책에 비판적이었으면서도, 전쟁 수행을 위하여 이런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며 등거리외교를 통하여 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 국가 수립 초기의 우호관계로부터 제네바회담을 계기로 갈등의 씨앗이 배태되어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3. 베트남전쟁 이후 양국 관계

1975년 베트남의 통일 이후 베트남-중국간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련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중국과의 일방적 우호관계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에 베트남이 응하지 않고 사회주의권 내에서 주도권 쟁탈을 벌이는 중국과 소련 간에서 균형적 외교관계를 취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권 내에 머문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었다.

둘째,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캄보디아와 적대관계를 형성한 때문이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의 갈등 끝에 1978년 12월 마침내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폴포트(Pol Pot)의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정권을 무너뜨렸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중국이 1979년 2월 베트남 북부지역을 침공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간 전쟁의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양국간의 충돌은 폭넓

게는 '인도차이나연방 구상'으로 알려진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베트남의 세력 강화와 소련의 동아시아 세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과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었다.

셋째, 양국의 충돌은 직접적으로는 통일 이후 베트남 내 화교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탄압정책 때문이었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이전과는 달리 화교들에게 베트남 국적을 가지도록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부터 남부 자본가들의 자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교 자본가들의 자산을 몰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화교들이 보트피플(boat people)이 되어 베트남으로부터 피신하였다. 베트남은 화교문제를 계급간 문제로 보려 하였고, 중국은 이를 민족문제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1977년말에 화교문제를 다룰 기구를 만들어 자국의 경제개혁에 기여할 화교들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었다. 1978년말까지 베트남에서 거주하다가 중국으로 입국한 화교들의 수는 20만명에 이르렀고, 1978-79년간 베트남으로부터 탈출한 중국계 난민은 27만명이나 되었다(Amer 1993, 320, 324). 화교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지하였고, 이는 그간 점차 냉각되어온 양국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베트남은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베트남은 서방국가로부터의 경제적 봉쇄, 중국으로부터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고자 1978년 6월 소련과 동유럽 국가간의 경제협의체인 COMECON(혹은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하였고, 1978년 11월 소련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베트남은 1978년 12월에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중국과 우호관계에 있던 폴포트 정권을 제거하고, 베트남에 우호적인 헹삼린(Heng

Samrin) 정권을 세웠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라오스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인도차이나 지역 3국간에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중국은 베트남을 인도차이나연방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연방을 결성하여 동남아의 맹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지역패권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중국은 베트남의 화교 탄압 및 소련 편향에 대응하여 1978년 7월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였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1979년 2월 베트남에 대한 '징벌' 침공을 감행하여 베트남 북부 국경지역을 약 1개월간 점령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완전 단절되게 되었다. 중국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에도 권좌에서 쫓겨난 크메르 루즈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하였고, 베트남-중국간의 갈등관계는 1980년대말까지 이어졌다.

4. 사회주의 개혁 시기 양국 관계

베트남은 1970년대말부터 부분적으로 경제개혁정책을 시행해오다가 1986년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 머이'(Doi Moi: 刷新) 정책을 채택하였고, 중국은 이미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중국 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으므로, 대외인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양국간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은 1991년 양국간 국교정상화로 이어졌다. 이후 양국은 다방면에서 상호협력관계를 증진해가고 있다.

1) 사회주의 개혁과 베트남 대외인식의 변화

베트남은 통일 이후 남부를 사회주의 체제로 통합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베트남은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의 문제점, 남부 주민들의 저항,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봉쇄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 후반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자금지원은 단절된 상태였으며, 단지 스웨덴이 평균 연간 5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고, 프랑스가 약간의 원조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Chanda 1993, 24).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말 지도자들 가운데 개혁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등장하여, 경제부문에서 부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반 경제상황이 약간 호전되자, 보수주의자들이 개혁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경계하고 나섬에 따라 1980년대 중반 개혁정책의 집행이 지체되었다가, 1986년말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인 '도이 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은 베트남의 대외인식상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베트남의 기존의 대외관은 세계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라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상호 투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계속 주기적인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진영이 승리하리라는 것이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외관을 1980년대 중반까지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존의 대외인식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Porter 1990, 3). 그 원인으로는, 첫째, 세계적 자본주의경제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

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계속된 침체로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필연적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현실을 인정하여야만 하게 된 것이다. 셋째, 베트남의 대외부채의 증가는 세계경제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1985년 이래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등장하여 서구와의 경쟁에서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패배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베트남의 시각 전환을 정당화해줄 수 있게 되었다.

대외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나타난 것은 1986년말 제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당대회는 베트남의 전면적 개혁인 '도이 머이' 정책을 채택한 대회였다. 이후 베트남은 전세계적인 사회주의의 쇠퇴 속에서 기존의 자본주의권과의 대결로부터 주변국들과의 화해, 협력관계의 증진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변경해 갔다.

새로운 사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의 국제화가 세계를 단일한 시장 안에 포괄하게 되었고, 상이한 체제를 넘어 상호 협력하도록 만듦에 따라, 각국은 단일한 세계시장에서 상호의존관계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과거 군사력을 통한 안보를 우선시하였으나,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88년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응웬 꺼 타익(Nguyen Co Thach)은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모든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며, 군사적 모험주의는 범세계적 경제적, 기술적 경쟁에서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Chanda 1993, 24). 이는 베트남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를 군사방위로부터 경제발전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다수의 개혁지향적 인사들에게 받아들여졌지만,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구분하고 사회주의 국가간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보수적 인사

들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제발전에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서방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책결정집단 내의 차이가 그간 베트남의 대외정책상 이중성으로 나타났다.

2) 국교정상화과정

양국이 개혁정책의 집행과 함께 양국간 우호관계를 복구하려는 시도는 198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양국이 경제발전에 국가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경색은 이러한 국가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이 1981년부터 중국과의 관계개선 방침을 제시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다가 1985년에 비로소 소련-중국간 관계정상화정책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지지하였고, 베트남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三尾忠志 1988, 256-7).

1980년대 중반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선상에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였고, 중소간 관계정상화는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이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소련 및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서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소련도 베트남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하였다. 마침내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소련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장쩌민(江澤民)이 총서기로서는 34년만에 1991년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양국간 관계정상화는 완결되었다.

베트남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소련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소련

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중소 양국간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을 전략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소련 및 사회주의권 국가 편향적인 외교관계로부터 전방위(全方位) 외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대해 취한 우호적 제스처는 국가주석이 1985년 베트남 건국 40주년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Amer 1993, 321). 베트남도 중국의 건국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우호적 관계로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곧 바로 양국관계가 급진전되지는 않았고, 국경에서의 충돌도 계속되었으며 1988년 3월에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에서 양국간에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말 당시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베트남과 중국 모두에게 체제 붕괴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던 때였기 때문에 그 갈등이 격화되지는 않았다.

양국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캄보디아 문제였다. 중국이 소련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소련이 중국과 수교를 위해 베트남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하였으므로 베트남으로서는 능동적으로 캄보디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Thayer 1994, 352). 더욱이, 베트남은 서방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캄보디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했다.

베트남은 1987년부터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지원하에 있던 헹삼린 정권이 1987년 10월 시아누크 국왕의 지위를 인정하고, 베트남군 철수후 국제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며, 연합정부 수립을 포함한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베트남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三尾忠志 1988, 257-59). 이전까지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고수

하는 가운데,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국제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여 왔었다.

결국, 베트남은 1988년 7월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을 1989년말까지 무조건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1989년 9월 철수를 시작하여 그 해 11월 완료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양국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은 198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베트남 외교부 차관의 중국 방문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으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에는 베트남공산당 총비서 응웬 반 린(Nguyen Van Linh)이 수상 도 므어이(Do Muoi), 전임 수상 팜 반 동(Pham Van Dong)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쓰촨(四川) 성 청두(成都)에서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과 회담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베트남측이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헹삼린-훈센 정부와 크메르 루즈를 결합한다는 안을 내놓았고, 중국은 이것이 실현된다면 베트남에 원조를 제공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Thayer 1994, 353). 중국도 1990년 8월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Chang Pao-Min 1997, 140). 마침내 1991년 10월 파리에서 캄보디아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캄보디아 문제는 매듭지어졌다.

이후 양국 지도자 간의 상호방문이 빈번해졌다. 중국도 1989년 6월 천안문사건으로 국제적 고립하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까지 양국간 국교정상화에 대한 특기할 만한 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은 계속되는 베트남의 고위인사 접촉 요구에 응하였으나, 반중국적 인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가운데 어느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인가로 논쟁중이었다. 외교부 장관 응웬 꺼 타익은 개혁지향적이고 중국과의 관계개선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1990-91년간의 대내적 논

란을 거쳐 결국 중국 및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방위(全方位) 외교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1년 6월 제7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및 모종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7차 당대회에서 응웬 꺼 타익을 공산당 정치국 및 중앙집행위원회(이하 당중앙위)로부터 실각시킨 것은 베트남이 중국에 보내는 우호의 제스처로 비쳤다. 1991년에 베트남 군부를 책임지고 있던 레 득 아인(Le Duc Anh)과 당중앙위 산하 대외위원회 위원장 홍 하(Hong Ha)가 중국을 방문하였고(Thayer 1994, 354), 외교부 차관 응웬 지 니엔(Nguyen Dy Nhien), 신임 외교부 장관 응웬 마인 껌(Nguyen Manh Cam) 등 베트남 지도부 인사들의 잦은 중국 방문이 정상화로의 발걸음을 가속화시켰다. 마침내 1991년 10월 캄보디아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직후 11월에 베트남공산당 총비서 도 므어이(Do Muoi)와 수상 보 반 끼엣(Vo Van Kiet)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양국간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III.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중국관계의 제 양상

1991년 관계정상화로 양국은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해왔다. 특히 198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쇠퇴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체제의 유지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면목표는 양국간에 공유하는 이익이다. 그러나 영토분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국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혹자는 이러한 관계를 "동지이지만 동맹자는 아닌"(comrades but not allies) 관계라고 평하기도 한다(Thayer 1994, 355).

1. 정치적 관계

베트남과 중국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유사한 이념과 경제발전전략을 공유하며 국가 건설을 수행하고 있다. 양국의 정책결정집단 내에는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을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자와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들 간에 대외정책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회주의체제 수호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자본주의권 국가들의 '평화적 전복'(dien bien hoa binh, 和平演變, peaceful evolution)전략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자본주의권 국가들은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지지, 정치적 다원주의, 인권문제, 군(軍)의 탈정치화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러한 공세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국 공산당이 더욱 밀접히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적 전복'에 대한 경계심은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 및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로 더욱 강화되었다. 1989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국 지도자들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쇠퇴에 대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개혁이 지체되는 반면 정치개혁이 적절한 계획이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Will 1998, 8). 이렇게 정치적·이념적 일치는 양국을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 경제적 관계

베트남과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1991년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반적으로 보면,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다. 교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역관계

공식적 교역규모는 베트남측과 중국측 통계 수치의 차이가 커 신뢰성이 적지만, 그 증가추세는 뚜렷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간 수출입을 합한 교역규모는 베트남 통계를 기준으로 1991년 약 3800만 달러로부터 2000년 3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3] 이로써 중국은 이제 베트남의 제5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측 통계는 베트남측 통계와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 수출입 품목을 보면, 베트남은 쌀, 원유, 석탄, 고무 등 주로 1차 산품을 중국에 수출하며, 중국으로부터 철강, 섬유, 건설자재, 기계, 전기제품, 식료품, 잡화 등을 수입한다.

〈표 1〉 베트남의 대 중국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출처
수출	19.3	95.6	135.8	295.7	361.9	340.2	474.1	440.1	858.9	1,534	(1)
수출		72.7	122.6	191.3	332.1	309.4	357.1	217.4	354.3		(2)
수입	18.4	31.8	85.5	144.2	329.7	329.0	404.4	515.0	683.4	1,423	(1)
수입		106.4	276.0	341.5	720.1	842.2	1078.5	1028.3	863.9		(2)

* 주: 2000년 수치는 추계치임.

출처: (1) Tong cuc Thong ke, *Nien giam Thong ke*, 각년도 및
(2) 『中國統計年鑑』, 각년도에서 재구성.

3) 한국-베트남 간 교역규모보다 크다. 2000년 베트남의 대 한국 수출이 3억 5천만 달러, 수입이 17억 3천만 달러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1억 달러이다.

국경무역은 비공식적 교역이 많아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곤란하지만, 베트남과 접한 중국의 광시(廣西) 장족자치구(壯族自治區)의 제2위의 교역상대가 베트남이라는 점에서 보듯이(Thayer 1994, 360),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1979년 양국간의 전쟁으로 국경이 폐쇄된 이후, 1988년말에 가서야 국경무역이 재개되었고 국경부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 국경을 넘어 상호 방문이 가능해졌다(Amer 1993, 321). 베트남-중국간 국경무역은 25개 국경무역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는 1998년 기준 연간 3억 61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된다(Ang Cheng Guan 1998, 1127). 이를 양국간 공식 교역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규모는 공식 교역의 1/3 내지 1/4에 해당한다.

2) 직접투자

양국간 직접투자는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대 중국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에 와서 중국의 대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표 2〉 베트남의 대 중국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금액	9.0	11.6	18.5	28.3	1.5	1.5	14.1	0.1

출처: 『中國統計年鑑』, 각년도에서 재구성.

〈표 3〉 중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88-96	1996	1997	1998	1999	2000
건수	45	8	11	8	24	17
등록자본금	65.1	11.5	22.9	14.8	29.8	18.4
법정자본금	39.0	8.3	10.8	8.8	18.2	14.3

출처: Tong cuc Thong ke, *Nien giam Thong ke*, 각년도에서 재구성.

교역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경제협력이 증대하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관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Will 1998, 10-13). 첫째, 양국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어 그 경제구조가 유사하므로 양국이 희망하는 상호보완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농업부문이 여전히 크고, 공업부문에서도 경공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국은 투자재원 확보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다. 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해외 화교들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크며,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조나 차관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관계에 있다. 셋째, 중국의 경제적 우위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공산품이 중국으로부터 밀수로 베트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베트남의 해당 산업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밀수 규모는 1996년의 경우 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으로, 쌀과 같은 품목의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세계시장에 판매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베트남이 세계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낮은 질의 중국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국간 경제관계가 확대되더라도 갈등요인은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관계의 확대는 상호 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3. 영토문제

1991년 관계정상화 이후 양국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3년 10월에 양국의 외교부 차관인 부 코안(Vu Khoan)과 탕쟈쉬앤(唐家璇) 간

에 국경문제를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고, 세 개의 공동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육상국경문제, 통킹만 문제 및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공동실무위원회는 1994년 2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간 세 차례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국경문제를 논의하였다(Ang Cheng Guan 1998, 1126). 이 결과, 육상과 통킹만에서의 국경문제는 각각 1999년말과 2000년말을 기점으로 양국간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 육상 및 통킹만 국경문제

베트남-중국 양국은 1,350km에 달하는 육상 국경선에 접하여 있다. 양국간에는 최근까지 육상 국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었으며,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도 국경문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침공 1개월만에 중국군이 베트남 북부에서 철수한 후 국경지역에서 잦은 충돌이 있어 왔다. 베트남은 자국이 국경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보다 300m 베트남측으로 들어온 곳에 중국이 국경선을 이동시켰다고 주장해왔다(岡部達味 1996, 145).

1991년 양국간 관계정상화에 따라 1978-79년 분쟁 이후 단절되었던 국경지역의 통행도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육로통행은 1994년 4월에 베트남 하룽 만(Ha Long Bay) 북부의 몽까이(Mong Cai)와 중국의 둥싱(東興)간에 재개되었으나, 철도운행은 1995년 12월도 므어이의 중국방문시 철도운행 재개에 대한 원칙 합의가 이루어진 후, 1996년 2월 중국 광시(廣西) 장족자치구(壯族自治區)의 핑샹(凭祥)과 베트남 랑썬(Lang Son) 성 동당(Dong Dang)을 연결함으로써 17년만에 재개되었다(岡部達味 1996, 145). 또한 1998년 2월에는 베트남의 라오까이(Lao Cai)와 중국 윈난(雲南) 성 허커우(河口)

를 잇는 철도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수 차례의 양국간 회담 끝에 마침내 1999년 12월 육상국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2000년 12월 베트남 국가주석 쩐 득 르엉(Tran Duc Luong)의 중국방문시 통킹만에서의 국경선 획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 육상 및 통킹만에서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베트남측에 불리하게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

2)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한 해상지역으로, 파라셀(Paracel) 군도,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중국 양국간, 스프래틀리 군도는 양국을 포함한 다국간 갈등관계에 있다. 이들 지역을 베트남은 각각 호앙싸(Hoang Sa) 및 쯔엉싸(Truong Sa) 군도로, 중국은 西沙群島 및 南沙群島로 달리 부르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간의 경제적 및 안보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아시아 전체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여러 국가간의 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는 230개의 섬, 암초, 환초, 모래톱 등으로 구성된 80만㎢에 달하는 지역으로,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원유매장량은 30-50억톤에 이른다고 한다(岡部達味

4) 베트남에서는 2001년 4월 개최된 제9차 당대회에서 당 총비서 레 카 피에우(Le Kha Phieu)가 업무상 과실로 실각하였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상 및 통킹만 국경협상시 중국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양국의 국경협정은 베트남측에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Cheng 2001, 441).

1996, 149).

1980년대에 해상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것은 1982년 UN에서 해양법협약이 채택되어 영해의 범위를 종전의 국제관습법상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고 배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역을 규정함에 따라 각국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부터였다.

베트남-중국 양국간에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양국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가며 이 지역이 자국의 영유권하에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상호간 특히 1979년과 1988년에 '말의 전쟁'을 수행해 왔다(Tonnesson 2000, 203). 중국은 당 나라 시대부터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후한(後漢) 시대(25-220)부터 남중국해에 출항했다는 기록을 들기도 한다.

베트남은 17세기부터 20세기 후반 중국이 이 지역을 침략할 때까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거해왔다고 주장한다. 부연하자면, 응웬(Nguyen) 왕조 때부터 파라셀 군도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상사를 설립하였고, 프랑스 식민지 시기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점령하였으며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이를 베트남에 이관하였다고 한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스프래틀리 군도 전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지도를 발간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다(전황수 1999, 264-65).

이 지역은 본래 각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포함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었다. 일본이 1939년 점령 당시에 중국도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았고, 일본은 이를 당시 점령하고 있던 타이완(臺灣) 까오슝(高雄) 시의 관할권 하에 두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타이완, 펑후(澎湖),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에 대한 권리를 방기해버렸다. 일본 항복 후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이 이 지역을 접수하였고, 1947년 이 가운데 이투 아바(Itu Aba, 중국명 太

平島)에 처음으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이 방기한 섬은 중국에 귀속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국민당군은 대륙에서 패하면서 이투 아바 섬에서도 철수하였다.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 각국이 영해를 3해리로 한정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없었다(岡部達味 1996, 146). 이후 1956년 필리핀이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의 북부에 있는 리드 뱅크(Reed Bank, 필리핀에 의해서는 프리덤 열도 또는 칼라얀 섬이라고 불림)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타이완이 다시 이투 아바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당시 파라셀 군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는데, 1974년 1월에는 중국-남베트남 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파라셀 군도 전체를 점령하였다. 중국측에 따르면 당시 북베트남은 중국의 행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岡部達味 1996, 147). 그러나,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은 남베트남이 남긴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고 공포하고,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전에 남베트남이 점령하였던 스프래틀리 군도의 6개 섬을 점거하였다.

중국은 1987년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여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에서 두 차례 해군 훈련을 하였고, 1988년 3월에는 중국이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존슨 리프(Johnson Reef) 해역에서 베트남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 선박 두 척이 침몰하였고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중국은 6개 섬을 점령하였다(Dobson & Fravel 1997, 258-9; 岡部達味 1996, 148). 그 후 중국은 1992년 2월에 영해법을 공포하고 남중국해의 섬 및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중국령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같은 해 5월 곧 남중국해의 와난탄(Wanantan, 베트남은 이 지역을 뚜찐 Tu Chinh이라 함) 지역에 대한 석유채굴권을 미국 크레스톤(Crestone)에너지 회사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년 4월에 중국의 원양석유공사(Offshore Petroleum Corporation)는 크레스톤과 합동으로 이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작업을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이 지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어 중국과 크레스톤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중국은 당초 계획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철수하여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1994년 10월 이 지역에서 베트남-소련 합자기업인 비엣솝페트로(Vietsovpetro)가 굴삭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1996년 4월 다른 미국기업에게 이 지역에 대한 탐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Ang Cheng Guan 1998, 1128). 이렇게 양국간에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항조치들이 연속되었다.

현재 베트남, 중국, 타이완은 스프래틀리 군도 전체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몇 개국이 이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실제 점령하고 있는 섬은 베트남이 21개, 중국이 8개, 필리핀이 8개, 말레이시아가 4개, 타이완이 1개라고 한다(Dobson & Fravel 1997, 258).[5]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1992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의는 "남중국해 선언"을 발표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호소하였고, 1993년 7월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을 창립하여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의를 개시하였다.

베트남과 중국은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문제를 1994년 8월 양국의 차관급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양국은 1994년 11월 장쩌민의 하노이 방문시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프래틀리 문제를 논

5) 그러나 다른 문헌에서는 각국별로 점령하고 있는 섬의 수가 베트남 24개, 중국 7개, 대만 1개, 필리핀 8개, 말레이시아 3개, 브루나이 1개라고 제시하기도 한다(岡部達味 1996, 149).

의할 것을 결정하였고, 1995년 11월에 스프래틀리에 관한 공동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Ang Cheng Guan 1998, 1129).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1998년 2월과 3월에 파라셀 군도에 위성기지국을 설치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화 부쓰를 설치했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Ang Cheng Guan 1998, 1133),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잠식해가는("talk and take")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Dobson & Fravel 1997, 260). 그러나, 중국이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면서까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정책결정집단 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군부는 세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외교부는 타국과의 협력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을 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베트남은 우선적으로 양국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ASEAN 및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한다. 1995년 베트남이 ASEAN에 가입하고 미국과 수교하면서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는 양국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안보와 결부되었다. ASEAN 국가들은 평화적 분쟁 해결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단지, 동남아시아 각국은 베트남-중국간 갈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베트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신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과도한 세력 확대로 인한 분쟁 발생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이렇게,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은 국내외적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있으며, 그 해결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IV. 맺음말

베트남과 중국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협력의 관계였다. 이 갈등과 협력은 양국관계에서 중첩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양국은 현재 전세계에 몇 개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적, 이념적 협력을 강화하고 개혁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영토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에서도 양국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가 경제발전에 있으므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양국간 갈등은 억제될 것이다. 또한 양국이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국제관계를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양대 진영간의 투쟁으로 보던 기존의 대외관으로부터 국가간 상호침투의 정도가 높은 상호의존관계로 전환하였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갈등은 더욱 억제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런 국제환경 속에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갈등상황을 상호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동시에, ASEAN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면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ASEAN을 통한 다자간 문제해결에 주저하고, 양국간 갈등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양국간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가간 관계가 점차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연계되는 현실을 거부하지 못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에서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양국관계는 베트남과 중국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관련된 국제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상호의존을 증대시키는 국제정세는 베트남과 중국간

의 관계에서도 협력관계를 확대해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유인선. 1987. "중월관계와 조공제도-가상과 실상-." 『역사학보』, 제114집.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전황수. 1999. "중국과 ASEAN의 스프래트리군도(南沙群島) 분쟁: 갈등양상과 해결노력."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황귀연. 1999. "베트남의 對중국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아시아지역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제2호.

Amer, Ramses. 1993. "Sino-Vietnamese Relations and Southeast Asian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4(March).

Amer, Ramses. 1997.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Vietnam and Regional Stabil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9, No. 1(June).

Ang Cheng Guan. 1998. "Vietnam-China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sian Survey*, Vol. 38, No. 12(Dec.).

Chanda, Nayan. 1993. "Indochina beyond the Cold War: The Chill from Eastern Europe." Borye Ljunggren, ed. *The Challenge of Reform in Indochina*. Cambridge, MA: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hang Pao-Min. 1997. "Vietnam and China: New Opportunities and New Challeng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9, No. 2(Sep.).

Chen, King. 1969. *Vietnam and China, 1938-195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eng, Joseph Y. S. 2001. "Sino-ASEAN Relation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3, No. 3(Dec.).

Dobson, William J. & M. Taylor Fravel. 1997. "Red Herring Hegemon: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Current History*, No. 611(Sep.).

Duiker, William J. 1986. *China and Vietnam: The Roots of Conflict.*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uu Van Loi. 2002. *50 Years of Vietnamese Diplomacy 1945-1995, Vol. II: 1975-1995.* Hanoi: The Gioi Publishers.

Pike, Douglas. 1988. "Vietnam and China." Joyce K. Kallgren, Noordin Sopies, & Soedjati Djiwandono, eds. *ASEAN and China: An Evolving Relationship.*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orter, Gareth. 1990. "The Transformation of Vietnam's World-view: From Two Camps to Interdepende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2, No. 1(June).

Shultz, Clifford J., II & William J. Ardrey, IV. 1995. "The Future Prospects of Sino-Vietnam Relations: Are Trade and Commerce the Critical Factors for Sustainable Pea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7, No. 2(Sep.).

Thayer, Carlyle A. 1994. "Sino-Vietnam Relations: The Interplay of Ideology and National Interest." *Asian Survey*, Vol. 34, No. 6(June).

Thayer, Carlyle A. 1994. "Vietnam: Coping with China."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Singapore: ISEAS.

Thayer, Carlyle A. 2001. "Vietnam in 2000: Toward the Ninth Party Congress." *Asian Survey*, Vol. 41, No. 1(Jan./Feb.).

Thayer, Carlyle A. 2002. "Vietnam in 2001: The Ninth Party Congress and After." *Asian Survey*, Vol. 42, No. 1(Jan./Feb.).

Thayer, Carlyle A. & Ramses Amer, eds. 1999. *Vietnamese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Singapore: ISEAS.

Tong cuc Thong ke. *Nien giam Thong ke (Statistical Yearbook).* Ha Noi: Nha xuat ban Thong ke, 각년도.

Tonnesson, Stein. 2000. "Vietnam's Objective in the South China

Sea: National or Regional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2, No. 1(April).

Vo Nhan Tri. 1990.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SEAS.

Will, Gerhard. 1998. "China and Vietnam: Chances and Limitations of Bilateral Cooperation." Bericht des BIOst No. 24/1998.

Zhai, Qiang. 2000.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岡部達味. 1996. "ベトナムの苦惱・對中關係." 西原 正/ジエームス・W・モリ 編. 『對頭するベトナム』. 東京: 中央公論社.

三尾忠志. 1988. "「大漢民族大國主義」とベトナムの對應." 三尾忠志 編. 『イソドシナをめぐる國際關係』.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郭明. 1992. 『中越關係演変四十年』.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Abstract

Vietnam-China Rel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nflict

LEE Han Woo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Vietnam and China have been in close relationship historically, while the pendulum of the relationship has swung between cooperation and conflict. Vietnam had tried to seek practical interest as a dependent state under the China's tributary system in the pre-modern era. Since the independence in 1945, Vietnam had good relationship with communist China formally. In the First Indochina War in the 1950s after the two countries' independence and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China's support to Vietnam was an important factor of Vietnam's victory against France.

Although Vietnam was an ally with China, there were the hidden cleavages in their relationship, as two countries pursued their own interests after the war. For instance, Vietnam could not but accept the Geneva Agreement in 1954, which stipulated the division of Vietnam temporarily, under China and USSR's

pressure to avoid the America's involvement on the regional conflict. Though China's assistance made North Vietnam advantageous to reunify the country in the Second Indochina War, their relationship became worse, because Vietnam did not firmly stand on the China's side in the Sino-Soviet dispute during the 1960s. Moreover, the relationship was freezed after the crash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79, in China's response to Vietnam's invasion into Cambodia and its suppression on the ethnic Chinese in Vietnam.

In the reform era in the 1980s, however, their relationship improved. The two countries tried to rehabilitate their good relationship and later normalized their relationship in 1991, in order to serve the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st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Since the normalization, the two have accelerated their interdependence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lthough the territorial problems have still not been resolved yet. The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especially on the Spratly Islands, is unresolved, although the two reached an agreement on the land border issue.

In conclusion, we can foresee that the pendulum will stay on the side of cooperation in the short term, while the issue of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can become the potential of conflict in the longer term.

* Key Words : Vietnam, China, Foreign Relations, Vietnam War, Socialist Reform, The South China Sea